

Brisy Shurjo
Joy Keya Alo

June



RaonAtti
and
nds of A

Idi to

2
3

Idi to

2
3

RaonAtti

목차

- 활동 일정
- 활동 모습
 - Dahapara NFPE School / Dahapara clinic
 - Korean class / English class / Art class / Taekwondo class
 - YWCA 박물관
 - 환경의 날
 - 환경 영화제 / 영화제
 - Mohela college 박물관
 - 나무심기
 - Refresh time
 - 원글라
- 생활 모습
 - Host Family
 - 여는 나눔, 닫는 나눔
 - 5월의 keyword :
 - 이번 달 hot topic



활동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Korean class	2 Art class Environmental movie
3 Preperation for Environmental day	4	5 Environmental day	6 Dahapara	7	8 Korean class	9 Art class Visit YwCA
10 Dahapara English class	11 Dahapara	12 Go to college(350ppm) Taekwondo class	13 Dahapara	14	15 Korean class	16
17 Refresh Journey to Dhaka city	18	19	20	21	22 Korean class	23 Art class Movie
24 Dahapara English class	25 Dahapara	26 원갈라 Learn Garo dance	27 Dahapara	28	29 Korean class	30 Art class Movie

활동 모습



Dahapara NFPE School / Dahapara clinic

주 3회 월, 화, 목



- Dahapara NFPE School

영어, 수학, 체육, 미술, 음악, 과학 여섯 과목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이 곳은 우기이다. 폭우가 쏟아져 Dahapara를 못 가는 날이 몇 번 있었다.

- 환경의 날

라운아티가 만든 환경인형극인 '시골호랑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 주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Dahapara NFPE School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환경의 날을 기념했다.



Dahaphara clinic



- Dahaphara clinic

질문지 (건강 관리, 가족계획, 말라리아 대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를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질문하고 그와 함께, Dahaphara clinic의 홍보도 겸하고 있다.

토요일



class

— Korean class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을 기획해 나아가고 있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대화나 단어를 준비해서 강의하고 있다.



일요일



class

— Art class

초반에 계획했던 커리큘럼대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이전체 활용하지 않고 그림을 작게 그리는 등 그림을 망치는 것이 두려워 보여 자유롭게 몸을 이용해 페인팅 하는 수업을 계획했으나 여전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손에 물감을 묻혀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유로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Ra🌍nAtti

월요일



class

수요일

— English class

- 수강하는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은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보통 게임으로 진행되어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실력이 차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끝말잇기를 영어에 적용해서 한적 이 있는데 반응이 좋았다 또한 이 게임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까지도 했다.

-Taekwondo class

-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 기본동작(축구, 배구, 야구 등)으로 몸풀기를 통해 재미와 더불어 충분한 몸풀기로 부상을 예방하고 있다.

기본발차기와 쉬운 기술 발차기 등을 통해서 비교적 재미있고 흥미를 잃지 않게 가르치려 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운동신경이 좋아 잘 하는 편이다.

- 원갈라 행사와 Refresh time등으로 인해 Taekwondo class의 공백이 많았다 그래서 인지 인지도가 좀 낮은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Ra🌍nAtti

6월 9일



YWCA 방문

-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Youth forum member들에서 여성 멤버들을 쉽게 볼 수가 없었다. YWCA와 YMCA가 나누어져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 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여성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스케줄에 YWCA 방문을 요청했었다. 현지 사정으로 뒤늦게나마 YWCA에 방문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 YWC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1984년에 시작된 Birisiri YWCA는 워크숍, 세미나, 기도회, 리더십 프로그램, 마이크로 크레딧, 비정규학교(어린 이들을 위한), 어른을 위한 학교, 보건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은 이 지역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과 상관 없이 약 100명의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돈을 모아 필요한 그룹의 일원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 흥미로웠다.



2~4PM



환경의 날 / 350ppm

버스 오픈

환경의 날에 대한 패널과 350ppm 관련 패널을 설치하고 끝까지 일은 참여자에게 350ppm 글자 모양으로 된 그림 안에 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꽃 - 각 부스가 가진 환경관련 퀴즈 6개를 모두 맞추어 '350ppm' 도장을 완성한 참여자에게 '꽃' 부스에서 한국 꽃모종을 나누어주었다. 퀴즈를 맞추어 도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가진 '퀴즈 맨'이 자리에 없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어린 참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해주었다.

전시- 아트클래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폐품을 이용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였다.

한국음식 - 축제 이틀 전 준비해두었던 '식혜'가 현지 스텝의 실수로 버려져 기계를 변경해 '수정과', '비빔국수', '만티(현지음식)'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음식을 2TK를 받고 판매 하였고 판매수입으로 273TK가 모였다.

EM발효액- 현지어로 된 패널을 제작하여 EM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진행하였다. 설명을 잘 이해한 참가자에 한하여 퀴즈를 맞추면 EM 용액을 주었는데, 참가자들 대부분 EM에 대해 흥미로워하였다.

페이스페인팅 - 350PPM 문구와 환경에 관련된 문구를 페이스 페인팅 할 때에 함께 그려 환경의 날을 기념했다.



RaonAtti

Recyclable
Exhibition



EM



KaomAtti

Flower



Korean Food



RaonAttis

Face Painting



About Environment



4~5 PM

콘서트

- 라온아띠와 Youth forum member이 함께 기획하였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춤과 노래를 Youth들과 준비하며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콘서트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Arirang



Korea song



Garo Traditional dance



Bangladesh song



ArinAtti



영화제



Duet-song



Taekwondo



Garo dance team



Korea dance

RaonAtti



환경의 날 (영화상영)



YMCA 캠퍼스 내, 야외에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영화를 상영하였다.

영화는 이 지역이 가진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로 인한 오염 등 '환경'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니메이션 'WALL.E' 를 상영했다. 현지어로 된 자막이 없었지만, 영화 대사가 많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반응이 좋았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었다.

30~40여명의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는 늦은 밤까지 행사에 참여하였다.



환경 영화제 / 영화제

매주 일요일

- 환경영화제

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6/5일 환경의 날까지 D-day를 세어 매주 일요일마다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다.

- 영화제

일주일에 한번 환경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는 시간을 통하여 많은 youth member,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youth들도 영화상영에 흥미를 느껴 우리는 영화제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모습에 관심이 많은 youth들의 요청과, 비록 대사를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여주자는 목적으로 지금은 한국영화 위주로 상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가 부족하여, 영화상영이 끝나고 난 후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다음에 상영할 영화를 결정하고 있다.



나무심기



환경의 날 프로그램 중 하나로 YMCA에서 기획했던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YMCA앞 공터에 Youth member와 함께 나무 20그루를 심었다.

라운아띠 멤버들의 호스트 패밀리 집에도 나무를 더 심을 예정이다.

6월 12일

Mohela college 방문

350ppm의 일환으로 Durgarpur에 있는 Mohela college에 방문하였다.

라온아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환경의 날의 의미, 올해의 환경의 날 슬로건 등과 350ppm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경 오염에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이에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350글자에 맞추어 붙이는 시간도 가졌다.





원갈라

“원갈라”라는 3일에 걸쳐 가로, 하중, 꺼치 부족의 전통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큰 축제를 관람했다. 이 축제를 통해 각 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과 특색을 볼 수 있었다.



생활 모습



Host family



각 단원들의 Host family를 돌면서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단원들의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각 단원들의 Host family 부모님과 소통하는 시간도 생기고, 단원들 간의 단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문화교류의 일부뿐도 되고 단원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의 단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결혼식



결혼식과 결혼식 전야제에 참가
하였다. 최근의 우리나라 결혼식과
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
행되었다. 마을사람들이 모여 서로
춤추고 노래하며 넘쳐노소 구분 없이
즐기는 무대였다. 초대받은 우리도
결혼을 축하하며 무대 위에서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다.



여는 나눔, 닫는 나눔

6월 2주차

Dahapara

-체육 수업을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진주에서는 아이들과 자연을 이용하여 노는 법을 나누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 자연과 함께 노는 것은 아이들에게 일상이었다. 스포츠맨십이나, 질서 지키기, 줄 서기만 아이들에게 잘 숙지시켜 주어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그나마 잘 하는 것이 몸 풀기고, 제일 잘 한다. 체조 동작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체력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미술 수업 같은 경우 2,3학년은 수업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존 수업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럴 때 다른 선생님들이 class 1, baby들을 맡는 식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어 교실

나름 재미있게 진행한 것 같다. 동사를 익히고, 그 단어를 이용한 스피드 퀴즈를 함께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음 수업부터는 학생들이 원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회화를 익힐 수 있게 하려 한다. 또, 학생들이 왜 한국어 수업에 오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태권도 교실

수업 자체는 재미있었다. 학생도 많이 없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수업 취소도 고려했었다. 발차기 후 어지러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어서 실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영화제

그 동안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해 왔다. 다큐멘터리 상영은 끝났지만, 유스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이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지 사람들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면서 문화 교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영화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기타

간사님과, 유스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유스들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Dahapara 모금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시설을 고치고 선풍기랑 전구 달아주는 것 해보는 것 어때? 간사님과 먼저 상의해 보자.



여는 나눔, 닫는 나눔

6월 4주차

Art class	새로운 학생이 자주 오는데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해서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이다. 재료가 항상 비슷하다 보니 수업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교실	학생들이 시험 때문인지 참여율이 적어서 소규모로 진행. 한국 동영상 보여주고 사진 등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영화제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다. 우리 취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다음 영화 어떤 것 볼지 같이 고르는 시간 가지는 건 언제?
기타	나무 심기 : 20그루 정도의 나무를 YMCA 앞의 공터에 심었다. 끝 마무리 생각하기. 펜팔 : 오늘부터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9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5월의 keyword : 無

조금 놀랐지?^____^?
키워드 없는 게 5월의 키워드^_____*



이번 달 hot topic





Hot Topic 1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재충전의 시간으로 다카여행을 간다고 들었다. 하지만 Refresh의 의미는 팀원들이 지쳤을 때, 중간 지점에서 재충전하고 다시 힘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다. 그래서 가야 한다면 큰 프로그램(350)이 끝난 시점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NCYB에 요청해서 다카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비리시리에서도 일주일 쉴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장소로 떠나고 싶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이라서 인지, 호스트패밀리도, 현지친구들도, 쉬는 것일지라도 프로그램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래도 내가 이곳에 활동하러 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돌아다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휴가를 비리시리로 받았더라면 나는 즐기지 못했을 것 같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었다.

사전에 메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적어 보냈었다. 우리는 다카 지리를 더 잘 아는 담당자가 일정을 짤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행 당일 날 아침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일정이나 동선이 짜여져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 일정과 동선을 계획하라고 미리 이야기 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Refresh Time

우리 다카 여행의 목적은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쇼 핑몰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쉬러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끼리 다닐 수 없다 보니 우리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시간에 쫓겨 재충하는 입장이 되어 우리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 같고, 우리와 Refresh를 위해 함께 온 현지친구 또한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요구했다. 그 때문에 우리도 기분이 상했던 것 같다.

나는 현지상황이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봉사자들도 혼자 다니는데, 한 동네에서 건물을 이동할 때마다 기다려서 다녀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시간을 정해서 조금 자유로워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잘 놀고 쉬다 왔지만, 우리 다섯 명만 즐거웠던 Refresh Time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속상한 마음이 든다.

나는 외국인들끼리 돌아다닐 수 없고,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
가 가는 곳 다 따라 다녀야 하고, 교통상황 때문에
4~5시면 들어가야 하는 것같은 현지사정이 불편했지만
잘 놀다 온 것 같고, Refresh된 것 같다.

그 전에는 350채мп레인 준비하느라 정신 없이 움직였는데,
Refresh다녀 와서 다시 활동하려고 그전 만큼 몸이 움직
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Refresh time없이 그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면 더 힘들고 지쳤을 것 같다.

Refresh Time

이번 Refresh time이 방글라데시를 본 것 같아
서 의미가 컸다. 우리는 여태 비리시리가 활동지
역이기 때문에 비리시리를 중점에 두고 바라봤었
다. 나는 생활 하면서 비리시리보다 더 큰 지역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 다카 여행을 통해 방글라데
시의 지역인 비리시리와 다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카는 사람도 많고, 물가도 비싸고,
날씨도 차이가 나고,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상황
도 알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것도 좋았다. 만약 이번 Refresh
time이 아니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
지 로컬버스나 CNG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기 못
했을 것이다.

다카에 가니 비리시리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
다. 무시를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
는 등의 태도를 취했었다. 그런데 그날 페이스 북에서
관련 게시물로 보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
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렇다고 구경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칫솔이
나 연필 같은 것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
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나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현지 친구랑 이야기 나눌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를 더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HOT TOPIC 2

다카 여행을 하면서 비리시리에 머무를 때와는 다른 점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보이는 빈부격차와 길에서 구걸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빈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를 느꼈다.

현지친구와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나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충분한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현지인 친구는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일 한 명씩 돕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구걸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조심스럽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임에도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에서 흔히 보는 시각장애인은 진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바르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돈을 꺼냈다. 이 곳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했다.

빈곤?

우리는 지하철이나 길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데, 얼굴도 마주한 적이 없는데도 TV에서 어렵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흔쾌히 지갑을 연다. 매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직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봤다, 그 중 한번은 처음에 돈을 주면 나중에 와서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점점 적은 액수의 돈을 주었을 때 받지 않으려고 한 상황도 있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무언가 느끼길 바란다.

빈곤의 사전적 정의나 유형을 알고는 있지만, 빈곤하거나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빈곤이란 무엇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이웃 중에 신문에 나올 정도로 가난하고, 우리 집에도 무언가를 얻러 오는 이웃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이곳 사람들과 비교하면, 집도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며 지는 것이 다른 것 같다.

빈곤?

내가 옆에서 보고 느꼈던 것이라 그런지 빈곤하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생각난다. 집에 돈이 많은 아이들은 돈 벌 시간에 공부하고 해외연수 다녀오고 사회적으로 잘 되지만, 돈 없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실현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돈을 낳듯 빈곤도 되물림 되는 것 같다.

나는 이런 문제를 대면했을 때, 우리 사회가 복지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각지대가 생겨서, 도움 받지 못하고 빈곤에 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생각하게 된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나는 왜 구걸하는 사람들을 의심부터 하게 되었나? 몇몇 사람들이 구걸을 이용하여 나쁜 이야기를 만든 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마저 의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을러서인지 왜인지 그렇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으로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곳에 의지되어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받는 돈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오는 성취감을 느낀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들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숙인을 보면서 사지가 떨저정함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사고가 위험한 것 같다.

나는 사람은 기대와 사랑과 성취를 먹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 것인지,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기대나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성취나 기대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장도 가졌고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빈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복지직장들,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결국 처음에 우리가 국내 교육과 무빙스쿨을 통해 배웠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과거에 성취나 기대 사랑을 느꼈더라도 현재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상황에 따라 전부 다른 것 같다. 먹지 못해 힘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이나 성취감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나는 빈곤에 처해져 노숙을 하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 사회의 탓이라고 생각된다. 가난이 되물림 되고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ধন্যবাদ

Thank you

RaonAtti